

동양화 매력 풍덩... 허백련 이후 한국화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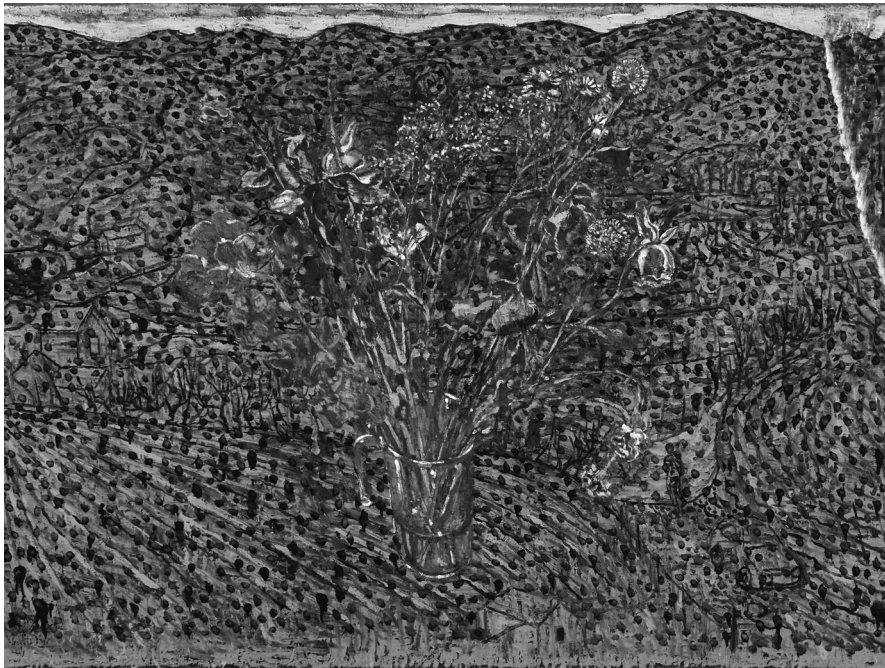
26일까지 남구 이강하미술관
기획전시 ‘시대의 이미지,...’
현대 한국화 중견작가 4명
권기수·유근택·성태훈·허진
가상실경 ‘선유도왈츠’ 눈길

의재 허백련은 호남을 대표하는 한국화 가다. 대가의 반열에 통하는 그는 1920년대부터 전업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근대화 시기 서양화풍이 몰밀듯 퍼지는 가운데서도 동양의 세계를 심화시키며 훗날 광주 화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남구 양림동에 있는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 ‘시대의 이미지, 이미지의 시대’는 허백련 이후의 현대 한국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동시대 수묵화단을 견인하고 있는 중견작가 권기수, 유근택, 성태훈, 허진 등 4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권기수 작가는 ‘총석(叢石)’ 시리즈와 드로잉, 유근택 작가는 ‘고향’ 시리즈, 성태훈 작가는 ‘선유도왈츠’, 허진 작가는 오랫동안 천착해온 ‘유목동물과 인간과 문명’·‘이중융합동물+유도피아’ 시리즈를 선보인다. 동양적 풍경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기이하지만 다채로운 세계를 감상한다.

권기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동양



유근택 작 고향.

이강하미술관 제공

의 전통적인 사상과 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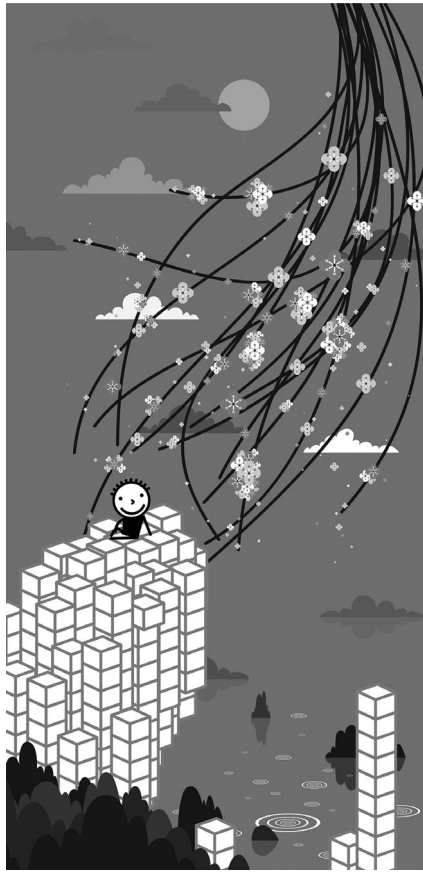
작가는 성별이나 나이로 규정지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기호인 동구리를 창조,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작가의 고찰을 작업에 담아낸다. 웃는 얼굴의 캐릭터적인 요소를 통해 작가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희로애락(喜怒哀樂) 속 웃음이라는 사회적 가면을 쓴 현대인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낸다.

또한 단순화된 형상의 캐릭터가 지닌 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작가는 강렬한

색감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소재를 선택, 구성하며 화면 안에 담아낸다.

유근택은 전통적 동양화의 지필묵을 근간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일상을 담아내고 리얼리티를 기억하는 현대미술 작가이다.

그의 작업에 보이는 소재의 일상성과 설치 방식은 먹이 퍼지는 발목 뿐만 아니라 과수와 호분을 이용한 채색으로 차별화 된다. 그의 화면은 서구의 원근법과 동양의 사상, 개인의 경험이라는 삼단계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회화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평이하고 가벼운



권기수 작 능수버들의 소리.

‘일상’이라는 주제는 역사성과 서사성으로 확대된다. 먹으로 온전히 기록된 일상이라는 모티브를 기억을 소환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일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이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얼리티’를 사용함으로써 그 깊이가 더해간다.

성태훈은 전남 곡성 출생으로 홍익대학교원 동양학과 졸업 및 성균관대 동양

철학과 박사 수료했다.

성태훈 작가는 전통 한국화에서 출발하여 수묵화, 채색화, 옷칠화 등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새로운 한국화를 모색했다. 특히 이번 작품 ‘선유도 왈츠(2022)’ 연작은 아크릴로 그렸지만, 동양화의 준법과 채색법 등이 두드러지는 대작이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총 6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재료나 소재, 주제 면에서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작가는 사람의 희노애락이 가득한 삶의 여정을 왈츠로 표현했으며, 우리나라의 굼직한 현대사를 전투헬기와 장갑차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신작 ‘무지개가 매화에 피다’ 시리즈와 대표작 ‘날아라 닭’, ‘길을 묻는다’ 등이 있다.

허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그는 조선말기 추사 김정희 수제자이자 호남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련의 고조 손이며 근대 남화의 대가인 남농 허견의 장손이다. 특히 200년간 5대에 걸쳐 호남 남종화의 원류, 윤림산방의 맥을 잇고 있다. 자연생태계 그대로의 역동적 유목동물과 동화이미지를 병치(併置)시킴으로써 환원과 기억의 동시성(同時性)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이중융합동물 연작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지행하고자 했다. 34회 개인전 및 60여회의 단체전시를 참여했고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일 사무실 내 유휴공간에 ‘오피스 갤러리’를 개관했다.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오피스 갤러리’ 개관

31일까지 초대전 등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사무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오피스 갤러리’를 선보인다.

‘오피스 갤러리’는 재단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공간이다.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회의실(다울실)과 카페테리아(라운정원)를 활용해 조성했다.

지난 1일 새단장을 마치고 오픈한 오피스갤러리의 첫 번째 전시로 동구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전시동아리 ‘서사모(희장유재영)’를 초대했다. 오는 31일까지 진

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봄을 기다리며’를 주제로 새해 희망을 담은 작품 16점이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재단은 지역 작가 개인전, 중견작가 초대전 등 전시회를 기획해 동구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문창현 대표이사는 “작품 전시 기회가 부족한 동구 지역 활동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갤러리를 마련했다”며 “오피스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선보이, 지역 예술인을 비롯한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김보현·오승우 2인전 ‘마음에 그리는 낙원’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한국을 대표하는 김보현, 오승우 두 작가의 예술세계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관장 장민한 교수)은 2023년 마지막 전시로 소장품을 내건 김보현·오승우 2인전 ‘마음에 그리는 낙원’가 4일부터 열리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보현(1917~2014)과 오승우(1930~2023)는 서로 13살 나이 차이가 난다.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독자적인 화업을 구축했으며 두 작가 모두 말년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꿈꿨던 이상향을 각기 다른 색채로 그려냈다.

이번에 전시되는 김보현 작가 작품은



오승우 작 십장생도.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제공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누어진다. 1전시실에 전시되는 1990년대 작품은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상상력이 돋보인다. 2전시실에 전시되는 2000년대 작품은 색채와 형태가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전시실에는 오승우 작가 작품이 십장생도(十長生圖) 중심으로 전시된다. ‘십장생도’ 시리즈는 십장생 이미지를 이용하여 영원한 자유와 안식이 있는 관념적인 풍경을 연출한 작품이다. 함께 전시되는 ‘동향의 원형’ 시리즈 역시 보이지 않는 자연의 기운, 동양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 등이 느껴지며 환상적으로 다가온다.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은 조선대학교 본관 1층에 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2월 23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도선인 기자

전남문화재단, 2월7일까지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6개사업 25억8000만원 규모

전남문화재단은 전남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4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공모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고는 4일부터 2024년 2월7일까지 65일간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각, 공연, 문학 등 문화예술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육성 △창작공간활용 △공연작품제작 △청년예술가활동 △자율기획형(모두의 예술)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등 6개사업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25억 8000만원이며 지난해에 비해 1억4000만원 줄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금을 개인 300만원, 단체 700만원 정액지원에서 문학, 시각, 공연 장르별 현실에 맞게 차등 지원하고, 청년예술가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연령을 전남도 청년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39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우수 창작공연 및 레퍼토리 작품이 제작·유통 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개편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대한 사전 교육과 및 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12월 한 달 동안 동부, 서부, 중부 권역별 3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요청 시(15인 이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해 지역예술인의 사업 신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과 단체 자부담 편성 의무는 없으며 개인은 1년, 단체는 4년(지역문화예술육성은 3년) 연속지원에 대해 휴식년제가 적용된다.

지원접수는 2024년 1월24일부터 2월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www.jncf.or.kr) 공모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